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개판 오분전’

한식은 많은 미스터리가 있다. 음식이란 어떤 명문화된 설정이나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카더라’도 흔하다. 언제부터 우리가 삼겹살을 구리로 먹게 되었는지, 돼지갈비는 정확히 어떤 유행으로 시작되었는지 기록이 미미하다. 있더라도 그야말로 ‘카더라’다. 더 멀리 가면 김치의 핵심 재료인 고추의 전래사도 정확하지 않다. 한국은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이 전했다고 하는 설도 있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한국이 전해왔다고 하는 설도 있다. 고추를 ‘唐辛子(도가라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당은 중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라고 보기도 한다. 물 건너 온 것에는 흔히 한반도와 중국을 가리지 않고 ‘唐’을 붙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미스터리 중에 부대찌개도 한 몫 한다. 추적을 해봐도 그저 민간의 전언이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꿀꿀이죽’ 같은 음식을 분석하고 기록했겠느냐는 말이 타당성이 있다. 부대찌개는 미군이 진주한 이후 즉 일본이 패망한 1945년 이후에 나온 것이 확실한 까닭이다. 대략 1960년대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부대찌개의 원조를 꿀꿀이죽이나 구호식량으로 보기도 한다. 미군 잔반을 받아서 시장 근처에서 끓여 팔았던 것을 꿀꿀이죽이라고 하는데, 서울의 경우 여러 시장 근처

에서 1950년대까지 있었다고 한다. 구호식량도 질서 없이 분배되다보니 마구 사람들이 몰려들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초기 식량을 배급할 때 기간요원이 곧 식사 판이 열린다는 뜻으로 ‘개판 오분전!’이라고 외쳤는데 그때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어 먼저 먹으려고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開판’이었다는 주장이다. 즉 우리가 생각 하듯 엉망이 된 상황을 말하는 개판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름 근거가 있는 말이다.

꿀꿀이죽과 부대찌개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고 보기도 한다. 초기에는 부대찌개도 미군부대 잔반이 섞인 것은 사실로 보인다. 식당에서 일을 돕는 한국인 요리사들이 조리하고 남은 소시지, 고기, 햄 등을 가지고 내다 팔았다는 것을 부대찌개의 원조라 할 동두천이나 의정부의 부대찌개집 주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점차 피엑스(PX)를 통해서 제품이 유통되면서 부대찌개가 본격적으로 요리 대접을 받게 된다. 1970년대 정도로 본다. 물론 요새는 모두 정품을 쓴다.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재료가 한국이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서다.

맨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한식 얘기로 시작했는데, 실은 부대찌개도 한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요리이고(일본도 미군이 오래 주둔하고 있지만 햄버거는 있어서 부대찌개 같은 요리는 없다) 결정적으로 김치가 들어가서 전혀 다른 요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대찌개는 외국에서도 인기 있는데, 당연히 한식이다. 부대찌개는 김치가 들어가면서 느끼한 음식에서 진하고 개운한 음식으로 진화했다. 요즘은 김치찌개에 ‘햄 사리나 소시지 사리’를 넣어 파는 식당이 많다. 이는 곧 부대찌개의 이중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사리’를 넣어서 김치찌개를 먹어보면 부대찌개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한 외국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치즈를 많이 먹는 나라다. 어? 우리가 무슨 치즈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샌드위치와 햄버거에 넣는 노란색 치즈가 큰 몫을 한다. 다음으로 모차렐라 치즈다. 피자에 올라가지만, 부대찌개나 김치볶음, 닭갈비 등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 통계가 높을 수밖에, 외국에서는 매운 한국식 요리에 모차렐라 치즈를 넣어 밥을 볶거나 구워먹는 걸 자연스레 한식으로 받아들인다. 한식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변하고 있다. 케이푸드의 인기는 이런 한국식 섞어문화, 교배문화 덕을 보고 있다. 그 원조는 아마도 부대찌개일 것이다. <음식칼럼리스트>

의료칼럼



김재봉 신세계안과 원장

백내장과 인공수정체

소이다. 수정체는 고무공처럼 탄력이 있는 조직으로, 사물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망막에 초점을 맺어 물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눈 속의 수정체가 단단해지면서 탄력성이 저하되어 조절능력이 떨어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없게 된다.

노안과 햇갈리기 쉬운 것이 백내장인데, 백내장이 시작되면 증상이 하나둘 나타나지만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빛이 퍼져 보이는 증상,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변색, 낮에 잘 안 보이는 주맹 등이 나타나면 백내장 증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즉시 안과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침침하던 눈이 갑자기 좋아져도 백내장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초기에는 수술이 아닌 약물치료로 백내장이 진행되는 속도를 더디게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다. 수술 시기는 백내장의 진행 정도, 불편함 등을 고려해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

환자 중 상당수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무조건 비싼 렌즈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렌즈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격이 높은 다초점 백내장 렌즈의 대안으로 프리미엄

다초점 백내장 렌즈가 도입돼 가격 때문에 수술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백내장과 동시에 노안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원거리부터 중간거리까지 자연스러운 시력을 제공하고 야간 눈부심과 빛 번짐이 없는 ‘프리시존 2’부터 ‘이소퓨어’, ‘아이헨스’ ‘퓨어씨’ 등 프리미엄 백내장 렌즈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내 눈에 맞는 렌즈를 결정해야 한다.

렌즈의 장단점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인들이 추천하는 말만 듣고 상담이 끝나기도 전에 무조건 다초점렌즈로 수술해달라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야간에 운전 등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초점보다 단초점이 맞는 경우도 있다.

특히 프리미엄 단초점렌즈는 중간거리도 잘 보여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다초점렌즈와 단초점렌즈의 중간적인 특징을 갖는 연속 초점 렌즈 역시 빛 번짐의 단점은 줄이고, 돋보기 없이 스마트폰을 볼 수 있어서 노인 교정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용도 다초점렌즈와 비교해 절반 이상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인공수정체는 무작정 주변에서 했다는 렌즈를 선택하기보다는 수술 전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나의 생활방식과 눈 상태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고



오봉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장

지역 맞춤형 물 복지 서비스 확대

어 보았을 때 미래 물 관리는 국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질적 성장과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2023년 정부는 물 관리 체계 전면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활용, 기반시설 투자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에 K-water 영·섬유역본부의 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한 광주·전남 지역 맞춤형 국민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가뭄 대비를 위해 다목적댐 간 연계 및 도시지역의 물공급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두 물줄기인 영산강 및 섬진강은 타 유역(한강, 낙동강 등) 대비 유역 면적이 작아 홍수, 가뭄 등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water는 주암댐 및 장흥댐 수위 간 비상연계를 통해 극한 가뭄에도 안전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가뭄에 큰 불편을 겪은 완도군 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항구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비상용수 공급망 구축사업을 완도군과 협력·추진하고 있다.

둘째, 물 소외지역 지원을 위해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 확대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산간지역 등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에 인

접한 광역상수도에서 수용가에게 직접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로 운영·관리가 어려운 지자체에 기술 컨설팅 등을 시행하여 물 소외지역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셋째, 상수도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반의 스마트 정수장 및 송수관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노후화 된 설비를 고도화·현대화 하고 있다. 또한 그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미래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물관리 주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K-water 영·섬유역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관리 방안들을 논의하고, 기술 교류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깨끗한 물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방안 모색과 개선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 K-water는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기업으로서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社說

조국혁신당 돌풍, 민주당 지지율도 올린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 바람이 심상치 않다. 창당한지 1주일에 불과한 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두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선명한 정권 심판론으로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느냐”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이 24.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31.3%)에 이은 2위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23.3%)을 앞섰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이 17%로 더불어민주당연합(16%)을 넘어서는 등 국민의미래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호남으로 폭을 좁히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더 높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26%

로 더불어민주당연합(33%)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NBS 정치조사에서도 호남 응답자의 22%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조국혁신당 열풍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에 따른 교차투표 실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과,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울 정도로 선명한 조국혁신당의 정권 심판론에 진보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당색을 ‘광주의 하늘’로 정할 정도로 광주에 공을 들인 점도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샀다.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다. 조국혁신당의 호남 선전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기보다 공통의 목표인 ‘정권 심판론’을 자극해 야권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원·원 효과’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 돌풍이 신당 창당에 따른 컨벤션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정권 심판론을 실현하는 정당으로 기록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 세계관광문화대전 추진 기대 크다

전남도가 전남을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마케팅 대전인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글로벌 매력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그것에 발표한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은 전남의 독특한 테마 관광 콘텐츠를 통해 세계인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지구촌 축제의 장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세계 어디에 선보여도 손색이 없는 축제와 둘레길, 남도미식, 웰니스, 남도 K-컬처, 농산·어촌 등 5개 관광 자원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해 고유 브랜드화한 뒤 세계관광문화대전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전남을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글로벌 관광문화도시 전남’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전남 방문의 해(2022-2023년)’ 기간 치러진 전국체전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남

도음식문화엑스포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남만의 로컬 콘텐츠를 확인한 만큼 오는 6월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테마별로는 ‘축제·둘레길’의 경우 경쟁력을 확인한 전남 로컬 축제를 세계의 인기 축제와 연계,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남도의 맛을 활용한 축제 경쟁력과 로컬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전남의 맛’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며, 전남 천년 사찰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명상시장’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콘텐츠 글로벌화 등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 2년간 ‘전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관광 콘텐츠 분야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번 발표로 사업 추진에 대한 청사진이 충분히 제시된 만큼 남은 기간 꼼꼼하게 준비해 추진할 바란다.

無等鼓

중국에서는 유독 명암이 갈리는 유명한 정치인을 후임자가 공로와 과오, 즉 공과를 나눠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마오쩌둥은 29년간 소비에트연방을 이끈 스탈린에 대해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평가했는데, 이후 덩샤오핑이 1945년 6월 공산당 주석을 시작으로 1976년 9월까지 중국을 다스렸던 마오쩌둥을 똑같이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공통점은 어지러운 시기 대의를 얻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수립했고,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독재를 했다는 점이다.

정치인의 과오

후임자 입장에서 보면 선임자들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의 체제를 이어받거나 모방해 비슷한 방식으로 통치했다는 점에서 과오를 지나치게 부각할 수도. 그렇다고 공로만 이야기하기도 어렵자 우회적으로 과오가 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선임자들의 잘못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 했을 것이다.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가 거론

되고 있다. 그와 건국 1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하고 서울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등 다시 회자되고 있다. 어떤 이는 공팔과이(功八過二)라는 후한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사실 이승만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그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가 집권 과정에서 여러 잘못을 저질렀고 그 후에는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 등 법·제도를

사사로운 악용·남용해 4·19 혁명을 통해 하야하고 미국에서 생을 마쳤다는 점이다.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4·19 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를 정점으로 한 반민주 체제를 뒤엎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아무리 공로가 뛰어나다고 해도 독재와 장기 집권에 나서고 그것을 위해 행했던 온갖 잘못들을 미화할 수는 없다. 정치인의 공로를 치켜세우기보다 그의 과오를 면밀히 살펴 후대가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